



메시아, 구세진인(救世眞人) 정도령(正道令)의 출현 비정상(非正常)의 정상화(正常化)를 위한 실마리, 절대적 기준

‘비정상의 정상화’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국가·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어젠다였다.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비정상’의 불합리한 관행을 철저히 혁신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 ‘정상’의 세상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정상화 원리’는 70년대 이후 지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개념으로 나왔다. Nirje(1969)는 정상화 원리를 ‘정신지체인인의 삶의 형태와 일상생활 조건을 가능한 한 일반적인 상황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들과 가깝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가치 이하로 평가된 사람의 ‘사회적-이미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둘째, 이들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이 특수한 개념이 시민교육의 정상화, 정부행정의 정상화, 국교의 정상화 등과 같이, 인류의 문명과 문화 전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로 확장되었다. 정상(normality)은 규범(norm)에서 온 말이라 ‘옳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정신의학적 용어를 경유해서 사회 진단 개념 또는 정치권력의 규범으로 전이되면서 근대 사회과학사에서 가장 말쑥 많은 개념으로 각인되었다. ‘개, 비정상’이라는 표현은 곧 ‘개 생각이 잘못 뻘어’라는 메시지로 작동되어 적군과 야군을 구별, 비판적인 세력을 척결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비정상’의 개념이 지도자의 정치철학과 이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해석되어 정권이 교체되는 5년마다 정상/비정상 기준이 바뀌는 가장 심각한 정치적 ‘비정상화’로 인해 민심이 분열되어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최초의 질문 -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현대 문명과 문화가 인간이 행한 잔혹한 전쟁과 테러, 잔인한 사회범죄로 인해 인류 종말의 우려를 조래하게 된 원인은, 인류사회를 이끌어 온 종교와 학문의 보편적 원리,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각한 고민 끝에 던져진 질문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며, 언제/어디에서/어떻게/왜 왔는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 천 년 동안 동일한 질문이 계속되었지만 그 어떤 종교인이나 학자도 이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한 사회제도를 통한 인간세상의 정상화를 시도한 인간의 선의(善意)는 운명적으로 대물림 받은 비정상적인 인간 본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 마치 ‘비정상의 정상화’를 ‘자기로부터의 혁명’이 아닌, 타인의 계몽·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안에서의 정상화가 우선이었다. 먼저 온전한 수신(修身)을 통한 개인의 정상화를 회복하여 인간의 본성과 인간 탄생의 배경을 밝힐 수 있는 명명덕(明明德)의 깨달음을 얻어야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치국평천하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극기복례(克己復禮)’, ‘극기승자(克己勝者) 천하승(天下勝)’이라고 한 것이다.

비정상적 양극화의 원죄, 선악과 사건 - 마귀영에게 포로가 된 장애아, 인간

‘비정상의 정상화’를 달리 표현하면 적폐청산(積弊淸算)이다. 적폐청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적폐의 본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적폐 정산(精算)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정산(精算)의 지혜와 정화(淨化)의 능력을 가진 적임자를 메시아 구세



중앙일보 2017년 6월 1일 자에서 발췌

주(救世主)라 한다.

메시아 구세주는 승리제단(勝利祭壇)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조국은 하늘나라 ‘에덴동산’이요, 인간의 조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 ‘아담과 해와’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6천 년 전 ‘선악과’라고 불리는 마귀영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이다. 마귀영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아담과 해와가 인간으로 전락하면서 주체영이 마귀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나’라는 주체의식이 곧 선악과요 마귀영이다. 인간이 본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라는 마귀를 죽여야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경지(無我境地)’를 논했고, 성경에서는 ‘나를 항상 버려라’고 했다. 나를 버리고, 무아경지에 이르는 방법은 ‘누구든지 내 몸, 내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다.’라고 했다.

근대건축의 거장 ‘루트비히 미스 반데어 로에’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로 유명하다. 특별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힘은 사소함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사소한 것에 대한 통찰과 발상의 전환이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전지전능의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되기 위한 실마리가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요 마귀영이라는 ‘사소한 본능’에 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의 완벽한 부활이 이러한 사소한 부분의 깨달음에서 이

루어진다. 그것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인간 개인의 역사가 곧 고대사요 현대사다.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미래의 종말, 사망(死亡)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에서 출발했다. 세계 인류사란 조상과 그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총합의 역사다. 한마디로 인류역사의 탄생이 ‘선악과 사건’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인류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만연해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 역사를 왜곡하는 국가에겐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천봉지탁소사립(天崩地塌素砂立) 시종간야소사지(始終良野素砂地)

천봉지탁소사립(天崩地塌素砂立)이란, 부천/역곡/소사(素砂)에서 하늘이 무너진 하늘나라 에덴동산이 회복된다는 뜻이다. 6천 년 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점령한 ‘나’라는 주체의식의 마귀와의 최후의 싸움(아담과 해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진자 구세주가 소사(素砂)에서 승리제단을 세워 불사영생의 신천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시종간야소사지(始終良野素砂地)란, 천지공

사의 시작과 끝이 모두 소사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탄허 스님은 지구가 성숙되는 결실 시대로 접어드는데, 이 결실을 맡은 방위가 간방(艮方)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방은 지리적인 팔괘(八卦) 분야로 보면 바로 우리 한국이다.

탄허 스님은 간방(우리나라)에 시간적으로도 결실의 간의 도수(度數)가 이미 와 있으므로 어두운 역사는 끝맺게 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 땅이 결실이 되려면 꽃잎이 쪼야 하고 또 꽃잎이 지려면 금풍(金風)이 불어야 한다”고 했다. 금풍(?)이란 다음인 금운으로 나오는 구세진인 정도령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왕도정치(王道政治)가 세워질 것이다. 종교는 과연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가 궁극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겉테기를 벗어버리고 종교의 알몸이 세상으로 들어날 것이다. 현재의 종교는 망해야 할 것이고, 쓸어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신앙인끼리 반목질하지 말고 내 종교, 내 종교가 옳다고 하며 원수처럼 대하는, 이방인이라 해서 동물처럼 취급하는 천박한 종교의 벽이 무너진다. 그 장벽이 허물어지면 조종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儒)·불(佛)·선(仙)이 하나가 된다”고 탄허 스님은 강조했다. <<부처님이 계신다면>>

탄허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하셨다.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적인 국가를 건설할 것이며 모든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국위를 선양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한국은 세계적인 신도(神都), 다시 말하면 정신 수도(首都)의 근거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역선해 제3권>>

탄허스님이 즐겨 인용한 격양유록도부신인(桃符神人)편에 ‘中興國(중흥국)의 大和門(대화문)은 始自子丑至戌亥(시자자축지술해)로 十二玉門大

開(십이옥문대개)하고 華城漢陽松京(화성한양송경)까지 寶物倉庫(보물창고) 쌓였으니 造樂金剛山彫城(조락금강산조성)은 夜光珠(야광주)로 端粧(단장하리)라는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세계적인 신도(神都)요 정신 수도(首都)의 근거지인 소사(素砂)를 중심으로 사방 30리에 금강석으로 새 예루살렘 궁전을 짓는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하나님 에덴공화국 - 국민 100%의 영생복락, ‘에덴 행복지수’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했다. 후속대책으로 히말라야 국가인 부탄의 사례를 참고해서 ‘국민 행복지수’를 개발해 연내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인구 75만 명의 소국인 부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넘지 않지만, 국민의 97%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고 있다. 부탄은 1970년대부터 불교적 전통문화에 기초해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행복지수’ 개념을 제안했다. 이후 “경제 수치만으론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한 세계 각국이 부탄행 ‘국민행복지수’를 모델로 삼기 시작했다.

‘에덴’이라는 말은 ‘행복, 쾌락’을 의미한다. 에덴동산이란 국민 100%가 선악과 사건 이전의 하나님으로 원시반본함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행복 나라를 말한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년을 맞는 해이다. 빈부, 종교, 인종, 민족, 군사 갈등 등 각종 비정상의 이해 충돌로 인한 좌절과 절망 분노의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만민들에게 메시아 구세주 출현 소식, 정상의 복음을 전해 영생복락을 누리게 할 책임이 승리제단 성도들에게 있다. 종교개혁의 완성은 구세주 메시아의 출현을 통해서 실현된다. *

안병천 / 승리제단 기획부장

모세의 후손이 한국에 살고 있다!



사사기 18장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모세의 후손이 대대손손 단지파와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오늘날 한국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기에, 당연히 단지파 자손과 혈연관계를 맺은 모세의 자손은 한국 백성으로서 현재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고 해야 맞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마귀 신이 들린 사람들은 성경을 보아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보기에 하나님의 숨은 경륜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가문 가운데 유다지파의 사람 즉 다윗 왕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를 세워 마귀의 시선을 유다지파 쪽으로 따돌리고, 단지파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으로 마귀로 하여금 오인(誤認)하게 유도하였다.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세히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

는 사람이 은신상과 드라빔 같은 우상을 숭배하였다고 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나 단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말은 없다. 다만 유다지파의 기업에 속한 땅 베히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온 요나단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한 것은, 그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신분으로서 합당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요나단이 미가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은신상을 숭배하였더라면 하나님은 평소 요나단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마귀 신을 받은 일부 목회자들은 단지파에서 구세주가 출현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들의 철밥통이 끊어질 수 있기에, 단지파와 제사장 요나단을 우상숭배로 타락한 집단이라고 설교의 주제로 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안의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한 목적은, 미가가 제사장 요나단을 강제로 납치했다고 억지 부릴 것(삿 18:24)을 대비하여 우상숭배의 은신상을 증거물로 압류한 것이니, 이 모든 행한 일들이 하

남의 지혜와 지시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분명히 제사장 요나단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성경 사사기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지파의 정탐꾼 다섯 사람이 제사장 요나단을 만나 “우리 단지파 백성들이 살 곳을 찾는 중인데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행통한지 하나님께 물어보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응답을 듣고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고 그대로 알려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제사장 요나단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우상숭배와 거리가 먼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가의 우상숭배 사건시기

미가가 은둔 천백 남으로 조각한 신상과 주조한 신상은 은(銀)도금을 하였던 사건시기가 여호수아의 임종 직후에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삿2:10~13)고 한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들어갈 때, 요나단이 아직 청년이었다는 점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의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임에 분명하다. 요나단의 할아버지 모세는 나이 40세에 애굽을 탈출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

피생활을 할 때,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심보라와 결혼하여 찾아 들을 받게 되자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고 심세를 한탄하며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 또는 종’이라는 게르솜(Gershom)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10년 내지 20년 동안 하다가 어느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일꾼 팔과 인연되어 그 제사장의 집안에서 살게 되었지만 아마도 양치기로서의 종살이를 10년 가까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모세의 성실함에 감동한 제사장 이드로가 기꺼이 그 딸 심보라를 주어 사위로 삼았으리라. 모세와 심보라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게르솜인데, 그 게르솜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10여 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요나단을 낳았음에 분명하다.

요나단은 원래 단지파를 위한 제사장도 뽑힘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유다 기업에 속한 베히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집으로 갔다(삿 17:8)고 하며, 요나단이 레위사람으로서 유다지파를 위한 제사장이었다고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유다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레위 가문은 아론의 자손이므로(수 21:4), 모세의 자손 요나단은 유다

기업에서 레위 사람의 제사장을 위해서 내어준 성읍과 목초지에서 거주할 수 없었다. 또한 요나단이 임시로 거주했던 베히레헴 역시 레위 자손에게 주어 준 성읍들과 목초지들에 해당되지도 않았다(수 21: 9~16).

레위지파 그릇의 가문 가운데 아론에 속한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 즉, 모세의 자손과 고라의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다고 한다(수 21:5). 훗날 유명한 제사장 사무엘이 에브라임의 땅에서 출생한 점과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지파의 기업에서 레위 제사장을 위해서 내어준 성읍들과 목초지에서 거주할 레위 사람은 그릇 가문 가운데 모세의 자손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단지파의 기업에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자손들이 살 수 없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었지만 그의 손자 요나단이 단지파와 함께 함으로써 진짜 가나안 북면 땅이요 새예루살렘이 되는 한반도에 들어와 살고 있으니, 광야에서 만사를 내리던 모세 자신이 예언한 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단지파에서 나온다는 필연임에 분명하다. *

백태선 기자